

북부권 농업인 영농 편의 확대

익산시 망성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준소’ 준공
소형트랙터·보행 관리기 등… 15종 52대 농기계 구비

익산시가 북부권 농업인들의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영농 환경을 지원한다.
시는 25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시의

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준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북부준소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



업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건축면적 497㎡, 1층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보관창고, 관리사무실, 세척장이 마련됐으며, 시설하우스가 집중된 북부권 농업 환경에 맞춰 소형트랙터, 보행관리기 등 15종 52대의 농업기계가 구비됐다.

시는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북부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번기 전인 3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북부준소 개소로 용안·용동·망성면 등 북부권 농업인들이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 임대사업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권역별 균형 있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정현을 시장은 “북부준소 조성으로 북부권 지역 농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경건위,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자리경제과·신성장산업과·기업지원과·신재생에너지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4일 군산시의회 제 272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과 4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일자리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김경구 의원은 군산사랑상품권이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선업 근로자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성장산업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서은식 의원은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지역 융합 R&D 및 기업 지원사업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면

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김영자 의원은 창업 희망기움사업에서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청년 사업가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박광일 의원은 창업 희망기움사업 참여자가 매출 저조 등으로 인해 자립역량이 부족할 경우, 대체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박경태 의원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만큼, 군산시가 사업 기간, 사업비, 수요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사랑상품권(chak) 앱에 기부기능 도입

편리한 기부 플랫폼 구축…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기대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구매·결제 애플리케이션 군산사랑상품권(chak) 앱에 상품권 기부 기능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 기능 도입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누구나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소액 기부 장려 △자발적 착한 기부를 통한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군산사랑상품권(chak) 앱의 메인 화면에서 ‘기부하기’ 탭을 클릭한 후 기부처인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할 금액을 입력하면 군산시로 지정 기부가 완료된다.

특히, 기부영수증을 신청하면 ‘사랑의 열매’ 누리집과 연동되어 신청까지 빠르게 완료된다. 또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고 기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눔의 온기는 더 퍼져나가야 한다. 군산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소액의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승용차 최대 1210만원·화물 1750만원 까지 지원

군산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2025년 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은 승용차 370대, 화물 150대 총 52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당 1,21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7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2자녀 이상) 및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 등을 위한 추가 보조금 혜택도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계약을 맺고

‘무공해차구매지원시스템(www.ev.or.kr/pa)’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gunsan.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환경과(☎063-454-446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행복위, 문화관광국 올해 주요업무보고 청취

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도시재생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4일 군산시의회 제 272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관광국 3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서동완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이 최초 용역보고 시 인건비 예산을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 만큼, 하루빨리 전문가인 대표이사를 공모하여 재단 운영에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 추진과 관련하여 연습 일정과 단원 모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란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이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만큼, 향후 운영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단순한 행사 중심의 운영을 넘어,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

사 선임 시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칠 것을 강조하며, 외부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국 단위에서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들에게 사전 의향을 물어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광진흥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연화 의원은 시간여행 축제에 대한 사업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축제의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감독 중심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관광진흥과의 정책실명제 사업이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도시재생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송미숙 위원장은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개복파출소에서 시민예술촌까지 확대하여, 우체통 거리와 연계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시민밀착형

자살 예방사업 추진 강화

익산시와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강화한다.

시는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주민밀착형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정신 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검사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또한 산업체 근로자와 노년층을 위한 정신 건강 검진, 상담 서비스, 신체·정신 건강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중장년층과 고령층 자살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망을 강화해 외로움 해소에 집중한다.

특히 일상에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운영 △정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스트레스와 우울증 예방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이동 상담 등 상담 기반을 확충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빈집 철거하고

주민 편익시설 제공

익산시가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한다.

시는 빈집정비 사업 대상지 11동을 선정했으며, 오는 12월까지 2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주차장, 쉼터 등으로 조성해 3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 활용하는 사업이다.

신청인은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철거할 수 있고, 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경관 개선,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46개소를 정비해 주차장 등으로 조성했으며,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극청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

